

僕射公派祖 享祀 時의 冠服 交替

현재 북아공파조(僕射公派祖) 향사(享祀) 때 삼헌관(三獻官)과 집례(執禮), 축관(祝官)의 관복(冠服)은 1994년 4월 5일(음 2월 25일) 청명(淸明) 식목일(植木日) 설단(設壇)을 한 후 마련한 것으로서 20여년이 나 오래 된 것이다.

검은색의 제복(祭服)과 갓(冠)으로 현재까지 향사(享祀) 때 삼헌관(三獻官)과 집례(執禮), 축관(祝官)이 착용(着用)하여 왔다. 이 제복(祭服)은 오래되어 낡았기에 새로운 관

복(冠服)을 2013년 7월 31일에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 마련한 삼헌관(三獻官)의 제복(祭服)은 자주색으로 앞쪽 위에는 안동권씨의 휘장(徽章)과 조금 아래쪽 앞뒤에는 각각 두 마리의 학(鶴)이 자수(刺繡)로 이루어져 붙어있고, 집례(執禮)와 축관(祝官)의 제복(祭服)은 남색으로 앞쪽 위에는 안동권씨의 휘장(徽章)과 조금 아래쪽 앞뒤에는 각각 한 마리의 학(鶴)이 자수(刺繡)로 이루어져 붙어있

다. 부품(部品)으로는 사모(紗帽), 각띠. 망건(綱巾), 홀(笏), 행건(行巾), 목화(木靴) 등이다. 새로 구입한 관복(冠服)과 보관함 등을 준비하는 일체(一切)의 경비는 북아공파조의 24세손으로 현빈세무법인 회장이고, 안동권씨대종원 감사(監事)이며 운영위원장인 상경(祥耕) 권영훈(權學勳) 족친(族親)이 부담(負擔)하였다.

〈총무부장 권오익〉



임진년 응치전몰 순국선열 추모제

임란응치전적지보존회(이사장 손석기)는 8월 13일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신덕마을 충렬사에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을 선양하는 추모제를 지냈다. 이날 추모제에는 구동수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임란응치전적지보존회 위원, 관련 후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응치전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로 침투해 오던 수천의 왜군을 맞아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응치(凝峙), 지금의 부귀면 세동리 신덕마을에서 왜군의 진격을 저지한 전투이다. 이 지역에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 응치전적지(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

18-1)가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양력 8월 13일을 추모일로 정하고 호남을 온전히 지켜낸 선현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손석기 이사장은 “앞으로도 호남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응치전적지를 잘 보존해 나갈 것이며 응치전의 역사적 의의가 제대로 조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헌 구동수 진안군의회위원장, 아헌 김기현 군부대 1대대장, 종헌 정옥섭 부귀면 예비군 중대장 (권영원 기자)

능곡회(陵谷會) 복회(伏會) 개최

능곡회(陵谷會; 회장 권영훈)는 2013년도 복회(伏會)를 8월 15일 오전 10시 안동시 남후면 무릉유원지에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복회에는 능곡회원 부부를 비롯하여 능우회(陵優會) 회원이고 능곡회의 명예회원인 권영세 안동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능곡회 권기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권영훈 능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복회에 준비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권혁록 능우회장은 축사에서 “5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우항계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우항계 못지않게 복회를

즐겁게 보내자”고 강조하였다. 안동 시내서 광복절 행사를 마치고 행사장에 조금 늦게 도착한 권영세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복회에 참석하여 너무 고맙다”며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더위를 감안하여 점심 식사를 비빔밥으로 준비하였으며 술안주로 돼지고기와 가오리회무침 그리고 포도, 복숭아, 감귤, 수박 등 각종 과일들이 푸짐하였다. 회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가운데 점심 식사를 끝내고, 일부 능곡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즉구장에서 즉구시합을 하기도 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참석



△능곡회는 남후면 무릉유원지에서 복회를 하고 기념촬영 하였다.

자 전원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해산하였다. 최근 안동지방에는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오늘 날의 행사장인 무릉유원지에는 큰 나무들이 뽕뽕하게 우거져 있어서 다소 더위를 잊은 채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안동권씨로 안동에 거주하면서 나이가 35-63세의 청장년들로 구성된 능곡회는 현재 회원이 70명이나 된다. 〈보도부장 권영건〉

창화공계 만은공(晩隱公) 중회활동



△병선 창화공회장과 만은공 권영의 회장일행

지난 8월7일 18시 권병선 창화공회장과 그 후손계 만은공 권영의 회장 등 종원15여명이 회음산폭포계곡에서 문중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창화공 회장은 인사에서 “더운 날씨 만은공 회장을 위시한 종원 축전에 근황과 건강을 거듭

기원드리며 준비해온 족보 자료 편찬에 대해 설명과 후손들에 관심과 아울러 대종원 족보구독에 대해서도 보화차원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어 영의 만은공중회장은 “폭염 속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 전복 순

창군 만은공 할아버님 취재차 방문 해준 병선 창화공 회장 및 범준 홍보부장에게 먼저 박수로 환영한 후 금번 만은공 할아버님의 유적지를 잘 취재하여 많이 일깨워 50부 이상 보급소지국 지점으로 종보구독을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모처럼 더위도 식힐겸 해서 계곡에서 마음껏 회포를 풀어보자고 아울러 축배제의로” 인사를 가능하였다. 이어 종원소개 후 대종원 범준부장이 인사말 한 후 공지사항으로 오는 8월26일 제421주년 이치대첩제와 최근 지난 8월호 게재된 응치(凝峙)도원수님의 임란초기 위엄지역 병행답사에 대해 안내 공지하여 이날 만은공 중회에서 단체로 참석하기로 하였다. 이어 복회를 결쳐 담백속 등 상찬으로 이어졌다. 다음날 일행단은 폭염을 피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만은공 산소와 창화공 회장의 안내로 산산지역의 가족 공원묘지를 둘러 보았다. 〈권범준 홍보부장〉

落南 晩隱公 諱 曉의 生涯

낙남 만은공 휘 호 생애



△18대 희수 단소(전복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만은공 재실(전복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19세 만은공 묘소(전복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학현)

공의 휘(諱)는 호(號)오 자는 호일(曉日)이며 만은(晩隱)은 세조(世祖)의 무단정치(武斷政治)에 벼슬을 버리고 만년(晩年)을 숨어 살았다 하여 사람들이 일컫는 호이다. 5대조 창화공(昌和公) 휘(諱) 준(準)은 삼중대광(三重大匡) 길창부원군(吉昌夫院君)이고, 4대조 현복군(玄福君) 휘(衡)은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이며, 3대조 현성군(玄城君) 휘(鏞)은 중대광(重大匡) 합포진변만호부만호(合浦鎭邊萬戶府萬戶)이다. 조부의 휘는 정주(定柱)이고 벼슬이 장군(將軍)이며 대원수(大元帥)에 이르렀으나 려말(麗末)에 충신(忠臣)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하고 원주(原州)에 은둔(隱遁)하여 절의를 지키다 조선개국(朝鮮開國)으로 출사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충정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에 이르렀고, 부(父)의 휘는 희수(希遂)이며 상호군(上護軍)이 되었다. 만은공(晩隱公)은 기개(氣概)와 기량(氣量)이 순박(淳朴)하고 중후(重厚)하며 학문(學文)이 정명(精

明)하여 일찍이 급제하여 관작(官爵)이 문과수의부위(文科修義副尉) 사정(司正)에 이르렀다. 공은 단종조(端宗朝)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영의정(領議政)으로 사신(使臣)이 되어 명(明)나라에 갈 때 수행하여 정사(正使)를 도와 외교상(外交上)에 예의(禮儀)와 어려운 일들을 능숙하게 집행하니 명나라 중신(重臣)마저 학문과 덕행(德行)을 추중(推重)하였고 수양대군은 공의 깊은 뜻을 알고 대우(待遇)하기를 친가족(親家族)과 같이 하였으며 수양대군이 왕위(王位)에 오를 때 공의 종훈(從勳)기록(從勳記錄)에 “아직 왕위(王位)에 이르지 않고 가난할 때 동덕(同德)한 신하(臣下)들의 힘을 많이 입어 나의 몸을 무사히 보전하였다”하고 “같이 명나라에 가고 올 때나 여러 지방을 편답(編摺)할 때도 노고(勞苦)를 같이 하여 뜻을 이루었느니라”하며 공을 대우하여 좌의원종공신(左翼原從功臣)을 삼고 장차 또한 크게 쓰려 하였다. 그러나 공은 세조(世祖)의 무단정치(武斷政治)에 실망하여 관연(判然)하지 않는 모양에 관직(官職)

을 사양하고 재능을 숨겨 나타나지 않고 원주(原州)로 해서 순창(淳昌)의 남산대(南山臺)에 은거(隱居)하며 정계(政界)에서 교유(交遊)하던 동료들과 왕래(往來)를 끊고 세상일에도 뜻을 끊으며 손수 쓴 글월도 남기지 않고 자손(子孫)에게 유언(遺言)하기를 “나의 분묘(墳墓) 앞에 절대 비석(碑石)을 세우지 말라”하고 지극한 비통이 심중에 간바 있기에 세상에 대하여 말한 바도 없으니 생전 시나 사후까지도 자기의 신상을 숨기려 했다. 오직 년하(年下)인 신(申) 귀래공(歸來公:申來舟 1439-? 大司諫 全羅道水軍節度使)과 이웃에 살면서 때때로 상봉(相逢)하여 세상 돌아가는 일에 추회(追懷)하며 절개를 온전히 하였다. 부인(夫人)은 옥천설(玉泉諫)씨이며 부친이 관서(判書)인(仁)의 딸이다. 자손들이 다만 꺾여 보던 바를 기록하고 또는 고을 사람들이 들어온 바를 적었으며 유정승(兪政丞 1730-1796 文忠公 左議政)이 비문(碑文)을 지었다. 순조(純祖) 정묘년(丁卯年 1807년)에 선비들의 의문이 있어 도내

(道內) 유림(儒林)들이 앞서고 이어 성균관(成均館)에서 서원(西園) 모시기로 상신하여 영음(營邑)으로부터 나라 예조(禮曹)에 이르러 건우(健宇)하라고 하명(下命)하였기에 서원(書院)을 살던 곳 남산(南山)의 양지(陽地)에 세워 사림(士林)들이 존경하여 봉사함을 붙이고 성담송환기(聖譚宋煥箕?-1807 文敬公 右贊成)가 봉사 축문(祝文)을 지으니 “단종왕(端宗王) 때의 유신(遺臣)이요 세조왕(世祖王) 때는 일사(逸士)라 의지와 절의가 해와 달같이 빛나고 밝으니 이에 양모(仰慕)하고 이에 봉사(奉祀)하노라” 하였다. 공은 백이(伯夷) 숙제(叔齊)와 같은 청절지사(淸節之士)의 뜻이 있어 벼슬을 버리고 둔거(遁居)로 충절(忠節)하였으며 목자(獨子) 이평(以平)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서 박천군수(博川郡守)를 지냈으며 손자(孫子) 세형(世衡)은 승문원(承文院) 박사(博士)이며 강계부사(江界府使)로 있다가 혼조(昏朝) 연산군(燕山君)의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년)로 생각한 바와 달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隱居)하였다. 만은공(晩隱公) 낙남(落南) 이후 후세손(後世孫)은 순창(淳昌) 곡성(谷城) 구례(求禮) 화산(和順) 담양(潭陽) 등 주로 전남북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묘소(墓所)는 전복(全福)씨이며 부친이 관서(判書)인(仁)의 딸이다. 자손들이 다만 꺾여 보던 바를 기록하고 또는 고을 사람들이 들어온 바를 적었으며 유정승(兪政丞 1730-1796 文忠公 左議政)이 비문(碑文)을 지었다. 순조(純祖) 정묘년(丁卯年 1807년)에 선비들의 의문이 있어 도내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비단필사 15세기 중반


최순권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왕과 왕후 표기

‘해주오씨족도’에는 고려시대 왕 및 왕후이기는 하지만, ‘자’, ‘여’를 표기하고 바로 대왕 및 왕후명을 기재하고 있다. 반면에 ‘안동권씨성화보’에는 상단에 왕 또는 왕후의 이름을 기재하고, 해당 칸에는 자000 또는 여000라고 표기하고 있다. 예컨대 예종의 경우 상단에 ‘예종대왕’이라 하고 아래에 ‘자000’라 하였고, 성종의 경우는 ‘어휘’라고 하고 아래에 ‘자000’라 하였다. 추후 왕후에 대한 표기는 회간대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대군이나 군 등의 왕족 남성에게도 성씨인 ‘이’를 표기하지 않고 이름과 봉호封號만 기록하였다. 월산대군의 경우처럼 ‘자’ 아래에 ‘자’이라는 이름과 ‘月山大君’이라는 대군 호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왕후와 중궁의 경우도 ‘안동권씨성화보’에는 상단에 ‘장순왕후’, ‘중궁’이라 하고 아래에 ‘여성곡리(聖谷里) 학현(鶴峴)이며 향사(享祀)는 매년 양력 11월 셋째 주이다. 서원(書院)은 고종(高宗)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으로 철폐되고 서원유지(書院遺址)는 보존(保存)되어 있다. (만은공 문중)

아래에 ‘泰安公主’라는 공주명을 기재하고, 그 왼쪽에 ‘書陽君 洪嬪’이라는 부마의 봉호 및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일반 족보의 경우, ‘철성이씨족보’에는 상단에 왕후명을 쓰고, 그 아래에 ‘여0000’라고 기록하거나, ‘의성김씨세보’ (1802년)와 같이 ‘여왕후명’을 쓰기도 한다. ‘안동권씨족도’에는 단종과 현덕왕후의 부침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아래에 붓으로 글을 쓴 흔적은 없어서, 해당부분에 이름을 표기한 비단 조각을 붙이거나, 아니면 위치만 표시하여 덕점으로 추존되는 회간대왕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월산대군의 경우처럼 ‘자’ 아래에 ‘자’이라는 이름과 ‘月山大君’이라는 대군 호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왕후와 중궁의 경우도 ‘안동권씨성화보’에는 상단에 ‘장순왕후’, ‘중궁’이라 하고 아래에 ‘여성곡리(聖谷里) 학현(鶴峴)이며 향사(享祀)는 매년 양력 11월 셋째 주이다. 서원(書院)은 고종(高宗)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으로 철폐되고 서원유지(書院遺址)는 보존(保存)되어 있다. (만은공 문중)

부마봉호만 기재되어 있다. ‘안동권씨성화보’에는 ‘여 공주이름’ 및 부마봉호 및 이름이 기재되고, ‘의성김씨세보’에는 여 아래에 ‘鄭嬪’이라고 하고 그 왼쪽에 ‘書陽君’로 기재되어 있는 방식과는 다르다. 가계기록의 내용 ■사육신 관련 인물의 기록 ‘안동권씨족도’에는 단종과 관련된 사육신 사건 연루자들이 기재되어 있다. 1456년(세조 2)에 사육신사건에 연루된 자에 대하여 “친자식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머니와 딸·처참·조손·형제·자매와 아들의 처참 등은 변방의 열악한 읍민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백·속부와 형제의 자식들은 먼 지방의 열악한 읍의 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에 당사자인 단종을 비롯하여 그의 어머니 현덕왕후와 외할아버지 권전은 사후였지만 폐위되었고, 그의 외삼촌인 권자신, 이모부 권산해, 조형로, 윤영손, 그리고 단종의 매부 영암위 정종, 외사촌 권자 등은 사건에 연루되어 참형을 당하거나 유배되었다. 먼저 현덕왕후는 본명이 순임(順任)으로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동궁에 들어갔다가, 1437년(세종 19)순빈봉씨가 두 번째로 폐인이 되면서 빈이 되었다. 1441년(세종 23)에 단종을 낳다가 죽은 이후에 문종이 왕위에 등극함에 따라 왕후로 추봉되었으나, 단종의 어머니이자, 권자신의 누이로서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폐위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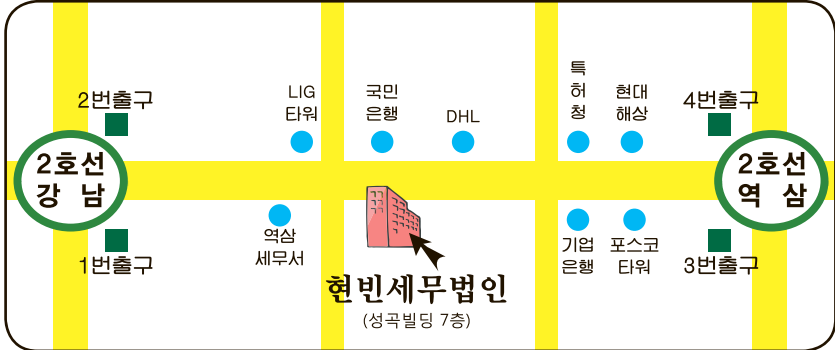
Tax Accounting Corporation
현빈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영훈

- 前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2과장
- 前 삼성세무서장
- 안동권씨 대종원 감사
- 북아공파 34세 경복포항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것,

현빈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무실 약도
강남역 1번출구 또는 역삼역 3번출구 도보5분
1층 SK텔레콤 건물 내(성곡빌딩)7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7층(역삼동, 성곡빌딩)
(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7층)
대표전화 : 02)538-2244 / 팩스 : 02)562-7007